



3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음 5월 10일) 제303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캐나다 공공외교활동 '유종의 미'

도, 민선 6~7기 지방정부 차원 외교역량 강화빛나

송하진 도지사, 비첼로 퀘벡주 차관과 면담서 전북과 문화·관광·신산업 분야 교류 제안 향후 우호협력 기대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정부 대외협력부 실비아 비첼로 차관과 면담을 갖고 전북과의 문화·관광·신산업 분야 교류를 제안했다.

전북도가 민선 6~7기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외교 역량 강화는 물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라북도의 전통 문화예술과 정책 등을 홍보하면서 지역 브랜드와 국가경쟁력을 동반 상승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공공외교 한마당 이 캐나다에서 유종의미를 거뒀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와 밴쿠버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주정부 고위 관계자, 주재국 대상 등과의 외교활동을 통해 전북을 홍보했다.

캐나다 오타와시와 퀘벡에서 각각 2일씩 펼쳐진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는 전라북도립국악원의 무용, 관소리, 사물놀이와 서예 퍼포먼스, 한복 패션쇼 등 풍성한 공연예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지 공예, 서예 쓰기, 전통놀이, 한복 입기 체험 프로그램, 시군 향토 음식 전시 및 시식, 전북 관광 프로그램 홍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러져 현지인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전북 전통국악 상영회', '전북 막걸리 만들기 체험 온라인 행사'를 함께 추진한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주몬트리올 총영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퀘벡주, 퀘벡시, 관광공사의 참여로 한층 더 풍성해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캐나다 한국문화원과 대사관에서도 각각 열린 문화행사에서 캐나다 주민들과 주재국 대사 부부 등이 참여해 한류 문화의 본고장인 전북의 매력에 심취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3일에는 캐나다 퀘벡주정부 대외협력부 실비아 비첼로 차관과 면담을 갖고 전북과의 문화·관광·신산업 분야 교류를 제안해 향후 캐나다와의 우호협력 교류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했으며 매년 여러편의 영화 및 드라마 배경으로 활용되는 지역이다"며 "전통 음악, 한식, 도서 등 다양한 문화 분야를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양 지역간 다양한 문화 교류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첼로 대외협력부 차관은 "한국은 전통적인 캐나다의 우방국으로 퀘벡주에서도 주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관 및 주한퀘벡사무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지자체와의 문화, 관광 분야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송 지사는 "특히 내년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으로 뜻깊은 해를 맞아 전북-퀘벡주간 교류 물꼬가 양국의 협력과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록 양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사는 밴쿠버호남향우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북이 개최하는 국제 행사에 대한 향우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세계호남향우회는 이날 송하진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밴쿠버호남향우회를 통해 전달하며 "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의 발전과 자긍심 고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향우회 분들의 애환함이 아말로 국가간 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바탕"이며 내년 전북에서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아태마스터즈 행사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는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 4일 전북이 주최하는 세계 호남인의 날 행사가 호남향우회 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사 준비를 당부하겠다"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군산 어청도 등대, 해수부 '6월 이달의 등대' 선정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내 어청도 등대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8월 이달의 등대'가 됐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소재 등대가 선정된 것은 선유도항 방파제등대(2019년 12월), 말도등대(2021년 6월)에 이어 3번째다.

이 등대는 전북에서 중국과 가장 근접(320km)한 섬인 어청도 서측 끝단부에 위치한 관내 유일의 유인등대다. 군산해수청은 이를 기념해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등대해양수산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에서는 전국의 아름다운 등대사진 전시와 등대를 소개하는 등대체험관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가 주어진다. /군산=김관근 기자

'국내 최초' G1 등급 태권도 국제대회 무주서

태권도원 T1경기장서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10일부터 12일까지... 한·프랑스 등 15개국 참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과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봉)가 공동주관하는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이하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그랑프리 챌린지'는 G1 등급의 태권도 겨루기 국제대회로서 WT 온라인 참가시스템(GMS)을 통해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한국, 프랑스, 호주, 부룬디 등 15개국 159명이 접수했다. 선수들은 6월 6일부터 국가별로 입국 후 태권도원으로 이동, 대회 전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규정과 동일하게 남녀 4체급 32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체급별 1위와 2위 입상선수에게는 G6 등급의 '2022 맨체스터 그랑프리 시리즈' 대회의 출전권이 주어지며 대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대회의 개막식은 10일 오후 4시부터 현대미술의 거장 이성근 화백의 작품 제막식을 시작으로 타악과 비보이 공연,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 공연, 케이팝 공연 등 태권도원에 모인 세계 선수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선보



일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이번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가 태권도의 진흥과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가 힘을 모아 준비한 대회인 만큼 참가 선수들이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 기간 8일 여행가는 달을 맞아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도 무료 입장 및 대회 관람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전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제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일반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기간을 1년 연장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하고 임대차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rtrms.molit.go.kr)으로 신고해야한다. /김경수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 축하합니다

- 일로회 회원 일동 -

